

LG필립스LCD 사상 최대적자 충격

2/4분기 순손실액 3220억원 ... 시설투자 3조원으로 축소 5.5세대 집중

LG필립스LCD가 2006년 2/4분기에 2005년 1/4분기 이후 5분기만에 적자로 전환하면서 분기별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LG필립스LCD는 또 4/4분기를 중심으로 판매가격이 안정되고 LCD TV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해 3/4분기에도 실적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LG필립스LCD는 7월11일 오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2/4분기 실적발표 기업설명회를 갖고 2006년 2/4분기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액 2조3150억원, 영업손실액 3720억원, EBITDA(법인세, 이자 및 감가상각비 차감 전 이익) 2430억원, 순손실 322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2005년 1/4분기 매출액 2조640억원, 영업손실액 1350억원, 순손실 790억원을 기록한 이후 5분기만에 적자로 돌아선 것이며, 적자 규모도 분기별로 사상 최대이다.

LG필립스LCD는 2005년 1/4분기 이후 흑자로 전환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2005년 2/4분기 2조3080억원, 290억원, 410억원, 3/4분기 2조7410억원, 2400억원, 2270억원, 4/4분기 2조9630억원, 3340억원, 3280억원으로 증가하다 2006년 1/4분기에는 매출액 2조7410억원, 영업이익 520억원, 순이익 480억원으로 실적이 둔화됐다.

LG필립스LCD는 실적 하락 등에 대해 업계 전반에 걸친 TV, 모니터, 노트북 PC용 패널의 평균 판매가격 하락, 예상을 밑도는 판매량 증가, 공급 과잉의 영향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LG필립스LCD는 당초 2/4분기의 전분기 대비 패널 출하량(면적 기준)을 20% 중·후반대 증가율로 전망했다가 6월12일 절반 수준인 10%대 중반의 증가율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LG필립스LCD의 2/4분기 평방미터당 평균 판매가격(ASP/m²)은 1598달러로, 1/4분기보다 약 19%, 1/4분기 평균에 비해서는 약 18% 각각 하락했다.

면적기준 출하량은 1/4분기 대비 17% 증가한 총 150만m²를 기록했다.

반면, 2/4분기의 평방미터당 매출원가는 170만3000원으로 1/4분기보다 5% 감소했지만 총 매출원가는 출하량 증가에 따라 2조5290억원으로 1/4분기에 비해 10%, 2005년 2/4분기보다는 17% 늘었다.

2/4분기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TV용 TFT-LCD 패널이 48%, 데스크톱 모니터용 패널이 26%, 노트북 PC용 패널이 21%, 기타 어플리케이션용 패널이 5%를 각각 차지했다.

LG필립스LCD의 론 위라하디락사 사장은 “4/4분기를 중심으로 하반기에는 판매가격 안정과 LCD TV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3/4분기에는 LCD TV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 P7의 지속적인 양산 및 판매가격 안정화 추세에 따라 면적기준 출하량이 2/4분기 대비 20%대 중반에서 후반대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LG필립스LCD는 3/4분기 평방미터당 평균 판매가격이 2/4분기 대비 한자리 수 중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3/4분기 EBITDA 마진은 10% 초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LG필립스LCD는 또 기존의 생산라인에 대한 추가 투자를 연기해 2006년 시설투자를 당초 4조2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8세대 투자 시기와 규모를 재검토하는 한편 다목적 5.5세대 라인을 신설키로 했다.

5.5세대 라인은 와이드 노트북용 LCD 주력 제품군의 유리기관 효율성이 기존 4-5세대에 비해 높은 데다 1장의 유리기관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제품 수도 최고 3배까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LG필립스LCD는 5.5세대 라인에서 2007년 하반기부터 14.1인치, 15.4인치 와이드형 노트북 및 모니터용 LCD를 주로 생산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7/13>